결사·문헌학·禪… 올해 학술행사 '다채'

주요 불교 학술단체, 무술년 새해 일정은

불교학연구회 日동대사와 워크숍

韓불교학회 4차산업 연구서 발간

20돌 앞둔 불교평론 4차산업 특집

선학회, 禪 연구방법론 조명 '눈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주요 불교학 단체들도 새해를 맞아 한해 사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원효와 4차산업 등 굵직한 학술 이슈가 있던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올해에도 다양한 주제의 학술행사들이 계획돼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3월 10일 예정된 봄 논문 발표회로 본격적인 한해 사업 일정에 들어간다. 주제는 발표를 희망하는 학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춘계학술대회는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주제는 '불교 결사의 재조명'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나타난 결사의 유형과 각 시대별 결사에 대해 논의한다. 추계학술대회는 '무아와 자아,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11월 1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초기 및 부파불교, 유식 등에서 바라보는 무아와 자아에 대한 해석들을 다룰 계획이다.

불교학연구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일본 동대사 화엄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하계워크숍이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동대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워크숍은 '동대사에 전승된 한중일의 화엄사상'을 주제로 열리며, 김천학 동국대 교수와 박용진 능인대학원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지난해 화제가 된 '4차산업과 불교' 국제학술대회의 성과를 이어간다. 한국불교학회는 발표된 '4차산업과 불교' 논문들을 수정·보완한 연구서를 발간하며, 오는 5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또한 1월에는 '저자로부터 듣는 나의 불교학' 주제 동계워크숍, 3월에는 춘계학술대회, 7월에는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 주제 하계워크숍, 11월에는 추계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은 오는 5월 '원·명대의 선사상'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에는 고봉 원묘와 감산 덕천 등 원·명대 조사들이 조명된다. 11월에 예정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선불교 연구 방법론'을 다룬다. 종교학·철학·종학적 측면에서 진행된 선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내년 창간 20돌을 맞는 한국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올해에도 다양한 특집들을 준비 중이다. 가장 먼저 확정된 특집은 '4차산업'과 관련된 논의들이다. 지난해 불교학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외부와 연계·논의된 것이었다면, 〈불교평론〉은 불교 내부적 성찰에 주목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회에 일상적 부도덕 행위에 대해 불교적 관점서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특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예정된 창간 20주년 사업 관련 준비 역시 올해부터 들어간다. 박병기 불교평론 편집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은 "내년 하반기에 2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라며 "세계불교 내 한국불교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광사 불조전 불상, 화엄사상에 영향"

김세영 학예연구사, 〈미술연구〉 92호서 주장

화엄 교학 중시했던 부휴문중

불상·불화 조성에 사상 반영

송광사 불조전에 봉안된 삼신불과 53불이 조선 후기 큰 법맥인 부휴문중이 중시했던 화엄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영 용인대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미술자료〉 제92호에 게재한 논문 '순천 송광사 불조전 불상과 부휴문중의 사상'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가장 먼저, 김 학예연구사는 "부휴문중은 임제법통과 송광사의 보조유풍을 계승한 독특한 성향을 가졌다"면서 "부휴문중은 송광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법맥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화엄교학을 중시했는데, 이런 성향은 불상, 불화, 비석, 부도 등에서 확인된다"고 전제했다.

화엄교학을 중시했던 부휴문중의 사상이 불상 조성에 영향을 미쳤던 근거로 김 학예연구사는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모니불의 삼신불을 예로 들었다.

김 학예연구사는 "삼신불은 〈화엄경〉의 경주(經主)인 비로자나불과 함께 노사나불, 석가모니불로 조선 후기 삼신불 불사가 이뤄진 곳이 모두 화엄을 중시한 벽암 각성과 관련되며, 이는 부휴 선수에서부터 기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학예연구사는 〈관약왕약상이보살경〉과 참법류 경전에서 영향을 받은 53불도 부휴문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그는 "참법류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다불 중 유독 53불을 조성한 것은 '53'이라는 숫자가 〈화엄경〉 '입법계품'에 53선지식과도 연관되는 법수(法數)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불조전 53불은 사중오역(四重五逆)의 죄를 없애주는 참회적 성향의 과거 53불과 법맥을 잇는 불조(佛祖) 53불을 신봉하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광사 불조전 삼신불과 결합한 53불은 부휴문중의 강한 화엄 중심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과거 칠불과 결합하는 일반 사찰의 불조전과는 다른 도상"이라며 "송광사 불조전 불상의 융합적 도상은 당시 부휴문중의 사상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술자료〉 제92호에는 △이준광의 '고려 이룡문 청자의 특징과 용도' △류승진의 '잊혀진 미술의 신, 기예천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다카무라 고운 작 〈기예천〉' △김용철의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제도와 관련 법령' △이희관의 '당송시기 월요 가마의 구조와 그 특징 - 고려시기 청자 가마 구조의 파악을 위한 전제' 등의 논문이 실렸다.

한편, 〈미술자료〉의 모든 논문과 총목차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송광사 불조전의 불상들. 불조전의 삼신불과 53불은 부휴문중이 강조했던 화엄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사진제공= 순천 송광사





국보로 승격되는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사진 왼쪽)와 보물로 지정예고된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사진 오른쪽)

삼국유사·삼국사기 국보 지정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금강경 제경집'은 보물

한국을 대표하는 사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국보로 승격된다. 또한 고려 말기 만들어진 금강경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등 3건을 국보로 승격 예고하고,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 등 8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문화재는 삼국사기 2건과 삼국유사 1건이다.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는 2015년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 조선 초기 판본이다. 비록 총 5권 중 권1~2권만 남아 있으나 결락이 없는 완전한 인출본으로, 현존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70년에 보물 제525호로 지정된 '삼국사기'는 1573년(선조 6년) 경주부(慶州府)에서 인출하여 경주 옥산서원에 보내준 것으로, 조선 태조와 1512년(중종 7년)에 개각본과 고려 시대의 원판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보물 제723호인 삼국사기 역시 보물 제525호와 유사한 판본을 바탕으로 인출한 책으로, 인출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두 가지의 '삼국사기'는 총 9책의 완질본이자 고려와 조선 초기 학술 동향과 목판인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려 공민왕 19년(1370년)에 제작된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은 고려 시대 유행한 각종 불교경전과 관련 자료로 구성된 경전 모음집으로 경전의 구성 등이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다. 또한, 발원문과 시주 명단 등을 통해 간행시기와 참여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려 시대 불교경전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이광사 필 서결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 △신윤복 필 미인도 △백자 사옹원인 △나전경함 등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신성민 기자

주목! 학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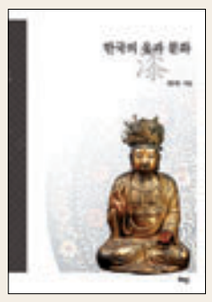
식생부터 성보까지 옻 문화를 고찰하다

허허 스님의 〈한국 옻과 문화〉

천연도료이면서 약용식품인 '옻'은 쓰임새가 많은 재료이다. 하지만, 옻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강릉 무심사 주지 허허 스님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옻과 문화〉는 옻의 식생부터 칠기 공예·건칠불·경판 등 문화재까지 전반을 연구한 학술서이다.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에서 우리 불상을 연구하면서 건칠불에 관심을 보이다가 그 도료인 옻에 대해 같이 연구하게 됐고, 그 결과물을 이 책에 담았다.

특히 옻은 불교문화와도 관련이 깊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700년이 지나도록 글씨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그 비결 역시 팔만대장경의 마감재로 바로 옻칠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옻을 이용해 만든 건칠불(乾漆佛)은 다른 어떤 재료의 불상보다 불상으로서의 위의를 잘 구현했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기에, 경북 영덕 장륙사 건칠보살반가상,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문화재급 건칠불들이 다수 현존하고 있다.



허허 스님은 "현존하는 건칠불상들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건칠불상은 제작방법이 용이하지만 조성과정에서 많은 시간의 소요와 재료의 희소성이라는 난점을 가지고 있어 널리 유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옻칠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고 중요한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재료였다"면서 "이 책이 옻에 대한 기초자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